

월요광장

‘더 킬링 오브 액트’- 어두운 역사 속의 ‘도덕적인 반사경’



강용주  
광주트라우마센터장

안와르 콩고, 영화 ‘더 킬링 오브 액트’ (조슈아 오펜하이머 감독)의 주인공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수많은 섬들로 이루어진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입니다. 네덜란드 식민지에서 독립한 친사회주의 성향의 수카르노 정권에 대해 미국의 지원을 받는 수하르토 장군이 1965년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쿠데타 후 인도네시아 전역에서는 ‘반공’의 이름으로 ‘빨갱이 사냥’이 벌어져 적게는 100만 명에서 많게는 250만 명이 상이 학살됩니다. ‘더 킬링 오브 액트’는 그 학살을 가해자의 시선으로 다루는 재현 다큐멘터리입니다.

안와르 콩고는 대학살을 주도한 암살단의 일원입니다. 처벌받기는커녕 40년이 흐른 지금도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어느 날, ‘위대한’ 살인의 업적을 영화로 만들자는 제안을 받습니다. 안와르 콩고와 친구들은 직접 시나리오를 쓰

고 연기도 하며 자랑스럽게 학살을 다시 그려냅니다.

학살의 주범들, 이 영화 속에서 과거 범행을 부끄러워했을까요? 오히려 자랑스러워합니다. 그 당시 ‘빨갱이’나 ‘중국놈’을 남치해서 고문하다 죽인 사무실에 영화감독을 안내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때려 죽였는데 피가 난자하고 치우기가 힘들어 피를 흘리지 않는 방법을 개발했다”며 철사로 교묘히 죽이는 방법을 자랑하듯 설명합니다.

감독의 카메라는 손자와 대화하는 안와르 콩고를 비춥니다. 손자는 오리새끼를 거칠게 다루다가 그 다리를 부러뜨립니다. 할아버지가 자상하게 타이릅니다. “오리가 아프지 않겠니? 미안하다고 사과해라” “오리에게까지 자상한 안와르 콩고, 그 런데 왜 그는 ‘빨갱이’에게 무자비했을까요? 바로 타자이기 때문입니다. “너는 인간이 아니다. 한 개의 조각(ein Stuck, un morceau)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나치(Nazi)들이 유대인들을 지칭하듯.

이 모든 학살과 야만의 집단적 광기는 ‘빨갱이’와 ‘반공’이라는 상투적인 관용구로 합리화됩니다. 집단적 광기는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모름’으로, 옳고 그름을 가리는 판단능력이 결여되어 책임 윤리를 실천할 수 없게 만드는 거지요.

안와르 콩고의 얼굴에 고문 기술자 이 근안이 겹쳐집니다. “논리로 자신을 방어

하려는 이와 이를 깨려는 수사관은 치열한 두뇌싸움을 벌인다. 그런 의미에서 심문도 하나의 예술이다”고 이근안은 주장합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도 심문이 안 되면 할 수 없이 강압심문을 하게 된다”면서 자신의 전기고문, 물고문을 합리화합니다.

시간을 돌려 과거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나는 똑같이 일할 것이다”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당시 시대 상황에서는 ‘애국’이었으니까. 애국은 남에게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도 합니다. “공산당 잡는 일은 영원한 애국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라며 자신의 과거를 자랑스러워합니다.

이것은 단지 인도네시아만의 잔인한 현실을 차분 영화가 아닙니다. 제주 4·3사건이나 보도연맹 사건, 광주 5·18, 그리고 세월호 유족들을 조롱하는 서북청년단 재건위에서 낯익은 모습으로 떠올러지는 우리의 민낯이고 역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화를 ‘촬영’한 안와르는 다른 면을 보여줍니다. 감독은 영화 서두에 안와르가 학살 현장에서 교살을 재연하는 장면을 말미에서 다시 한 번 촬영하는데, 이미 좌책감의 기색이 역력합니다. 감독이 보기에 그는 매우 불편해 했고, 무서워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안와르는 인정하지 않고, 대신에 감독에게 “의상을 바꿔 입고 연기를

좀 더 잘했으면 좋은 장면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거짓말’을 합니다. 자신이 학살을 재연하는 장면, 그것이 안와르에게 ‘도덕적인 반사경’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고문하고서도 처벌받지 않은 채 여전히 명명거리며 살고 있는 인도네시아에서 이 영화를 만들고 상영하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영화는 1000회 이상 상영되었고, 인터넷에서 무료로 공개됐습니다.

영화 이후 인도네시아에서 대학살은 점차 공론화되었고, 언론은 처음으로 과거를 소리 내어 언급하며 그 끔찍한 살인자들이 지금 권력을 휘두르며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심도 깊은 화두를 꺼내기 시작했다고 조슈아 감독은 말합니다. 극심한 공포에 시달리지 않으면서 마침내 가장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 할 수 있게 됐다고요.

어두운 역사 밑바닥을 들여다보는 것, 그 시공창 속으경 수많은 사람들을 밀어 넣었던 시대와 사람들을 기억하고 공론화 하자는 것은, 역으로 그 광기의 시대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때문입니다. 집단적 광기를 없애고 싶었다는 것을 자각하면서부터, 우리는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조칼럼

기본이 지켜지는 사회



강성두  
변호사·법무법인 이우스

벌써 12월의 시작입니다. 해마다 연말이면 다사다난했다는 말이 습관처럼 애기되지만 올 한해는 세월호 침사, 장성요양병원 화재 등 비극적인 일이 우리 지역에서도 너무 많이 일어났습니다. 두 사건 모두 1심 판결은 끝났지만 결과에 대해서 말도 많고, 아직 항소심이 남아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개인 의견을 피력하면 두 사건은 재판은 받은 사건의 관련자 개인에 대한 처벌로 충분하지 않으며 이것으로 끝난다면 이러한 비극이 또 다시 반복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무고한 많은

생명의 희생은 승객을 저버리고 탈출한 선장이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여러 가지 안전수칙이나 기준을 어긴 요양병원 운영자의 비양심에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이 타당한지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사기 장석지 열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한라나 문제가 다리를 건너가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다리 밑에서 뛰어나와 왕의 수레를 끌던 말을 놀라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죄인을 심문하고 벌을 정하는 직책인 정위를 맡고 있었던 장석지는 왕의 말을 놀라게 한 자를 심문한 후 임금이 행차하는 길을 범하는 죄에 해당하는 벌금형 판결을 내렸는데, 이를 들은 문제가 화를 내며 ‘왕의 말을 놀라게 한 자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볍다’고 하자 장석지는 ‘범이란 황제와 천하를 행하는 다 같이 지켜야 하는 것이고 지금 법에 의하면 벌금형이 충분한데 사정에 따라 달리 처벌하면 사람들이 법을 믿지 못하게 되고 법을 공경하게 집행해야 하는 자신이 그렇게 하면 천하의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다 제각기 법을 무겁게도 하고 가볍게도 할 것’이라고 하자 문제도 장석지의 말을 수긍하였다고 합니다.

장석지의 이야기는 정해진 법이 어떤 상황이나 또는 특별한 사람에 따라 달리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왕은 장석지에게 잘못하면 자신이 크게 다칠 수도 있었음에도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했는데 장석지는 왕이 다치지 않았고 정회 그러하였으면 왕이 그 자리에서 참수하였으면 되었으나 자신에게 맡긴 순간에는 정해진 처벌보다 더 중한 벌을 내릴 수 없다고 하였습니더.

이미 많은 희생을 낸 후 사후약방문식으로 엄한 처벌을 큰 소리로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곤 시간이 지나면 그 일은 일을 저지른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되어 버리고 그렇게 끝나기 일쑤입니다.

이번 일의 직접적인 원인은 이미 밝혀졌지만 그 일이 벌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소소한 잘못이 누적되어 있었던 것인

지, 또 그러한 잘못의 누적에는 엄정하지 못하고 사정에 따라 일관되지 못한 법집행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분명합니다. 큰 일이 난 후 난리법석을 칠 것이 아니라 기본을 지키는 것만으로 모든 게 충분할텐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 전 일본 아이치현 변호사협회와의 정기적인 교류세미나를 위해 나고야에 다녀왔습니더. 불법 주차된 차로 매일 같이 난리법석인 우리 병원 앞 광장과 사뭇 다른 모습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시내를 다니는 한참동안 이유 없이 길을 막고 서있는 불법주차차 차량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법을 지키고 집행한다는 것은 이렇게 사소한 것 같지만 당연한 기본을 준수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요. 옛날 말에 창고가 가득차야 예절을 알고 먹고 입을 것이 넉넉해야 영욕을 안다고 했는데 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이라는 우리의 창고가 가득할 날은 언제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할 때입니다.

기고

전남경제포럼 출범에 거는 기대



권오봉  
전남도지사 경제특보

“기업은 이윤을 보고 움직이니 기업유치 정책은 이점을 유념하라. 기업 활동에 아직도 규제가 많다. 인력양성 공급체계를 개선하라.”

지난 11월 25일 여수 엠블호텔에서 지역경제단체 대표, 기업체 대표, 학계, 경제관련 국가기관, 국제연구기관의 대표 29인이 모여 발족한 전남경제포럼에서 나온 제안들이다. 이낙연 전남지사가 주재한 포럼 창립 세미나에서 점심시간을 넘기면서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었다. 필자는 도지사 경제특보 자격으로 참석하여 창립세미나 진행과정을 지켜

보았다. 한마디로 이와 같은 포럼이 이제 출범했다는 만시지탄의 감회가 들인다.

지역의 산적한 경제문제를 풀어나가는데는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도와 시·군이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모을 때 문제 해결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 필자가 경제부지사로 재임하는 동안 전남의 시민사회 결속력이 아쉽게 느껴진 때가 있었다. 바로 탄소배출권거래소 유치와 광주은행 인수 참여의 실패 사례이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지만 사안의 성패를 떠나 지역의 경제 문제에 대한 의견 결집 정치의 부재가 아쉬웠다.

지역의 경제 현안에 대해 지역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고 대안을 강구하여 추진력을 도모하는 것이 지역의 경쟁력을 갖추는 데에 요구되는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엔 출범한 전남경제포럼에 대한 기대가 적지 않다.

이제 형식은 갖추게 되었는데 문제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도출된 결론을 어떤 방식으로 실현해 갈 것인가 하는 점이다. 필자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다음과 같다.

우선은 전남의 경제 실상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산업활동 동향, 수출입 동향, 노동시장 동향, 기업 자금사정 등에 대한 진단과 문제 파악이 되어야 한다. 통계가 부족하면 새로운 통계개발도 해야 한다. 지금까지 경제행정은 그 때 그 때 현안에 대해 단편적인 접근을 했다면 이제는 경제 현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모든 경제 문제는 서로 얽혀있기 때문이다. 문제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은 다음 순서이다. 먼저 도에서 동원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재정지출, 세제, 규제개혁 중 사안에 따라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 또는 혼합할 수 있을 것이다. 미시적으로는 분야별·사업별·프로젝트별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 도내 한국은행, 산업은행을 비롯한 농협, 수협, 광주은행 등 금융기관들과 자금공급을 협의할 수 있을 것이다. 금융

정책면에서 전남의 특수한 사정을 제시하고 이것을 반영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다음으로는 여수산단, 대불산단, 광양제철을 비롯한 비중이 큰 기업 차원에서도 지역과 협업하고 해야 할 역할이 있을 수 있다. 여수, 목포, 순천, 광양의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역할도 어느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 노사문제에 있어서 일터의 산업 평화가 기업 활력과 기업유치의 기본이 되는 두말할 것도 없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국회,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문제해결을 촉구해야 할 것이다. 단기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이고 대외 여건까지 고려한 거시적인 차원에서 전남이 준비하고 기반을 만들어 가야 할 미래전략도 함께 다룰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전남경제포럼 발족을 계기로 전남도와 산업계, 학계, 국가기관이 4인5각으로 보조를 맞추어 간다면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의 꿈을 훨씬 앞당겨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社說

한전 ‘나주시대’ 개막 시너지효과 기대 크다

국내 대표 에너지기업인 한국전력이 서울 삼성동 시대를 마감하고 1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나주로 본사를 옮겨 새로운 동지를 틀었다. 개칭식은 이달 중순께 지역 주민들과 함께 개최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전의 나주시대 개막은 직원 수와 매출 등을 감안할 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사례 중에서 최대 규모에 해당한다. 116년의 역사를 가진 한전은 임직원만 1만9000여 명에 달한데다 매출도 54조 원으로 국내에서 3위이자, 호남에서 가장 큰 기업이다.

한전은 나주 이전을 계기로 에너지 신사업을 일으켜 광주·전남권의 경제에 활력을 제공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그 일환으로 한전과 한전KPS, 한전 KDN, 전력거래소 등 에너지 관련 기업을 연속시킨 ‘빛가람 에너지밸리’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전은 산학연 연구개발 분

야에 100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지자체와 함께 에너지 관련 기업 100개를 이 지역에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26만7000개의 일자리를 새로 창출하겠다는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광주·전남과의 동반 성장이고, 그 전제는 지역 인재의 채용 확대에서 비롯돼야 한다. 지역에 대기업이 없어 해마다 젊은 이들이 수도권 등지로 빠져나가는 현실을 감안하면 일정 비율 지역 인재를 선발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 임직원들이 가족들을 수도권에 남겨두는 ‘나 홀로 이주’도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자체와 협력하는 한전을 비롯한 공공기관과 임직원들이 제자리를 잡고 성장할 수 있도록 수준 높은 주거환경과 교육·문화시설 조성은 물론 자녀 장학 등을 위한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혁신도시는 지역과 공공기관이 함께 가꾸고 발전시켜야만 성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전남도 투자 유치 사기진작책 더 높여야

투자 유치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전남도의 인센티브가 지나치게 인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성과급이 투자금액의 1만 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서류는 물론 전체 과정을 챙겨야하는 등 복잡하게 짝이 없다는 것이다. 외지기업을 끌어오리면서 보상은 소홀한 현행 제도가 전남도 투자 유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따져볼 일이다.

전남도는 지난해 16개 기업에서 1135억 원의 투자를 이끌어낸 공무원 등 17명에게 모두 858만 원을 지급했다고 한다. 성과급 비율을 계산하면 고작 1만 분의 1 수준이다.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한 성과급이 되레 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는 셈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전남도의 투자 유치 지원조례’ 또한 의욕을 저하시키는 독소 조항들로 가득하다. 기업유치 증빙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제한도 많기 때문이다.

예컨대 투자자를 설득해 투자를 창출했다는 내용이 명백하게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다. 성과급을 받으려면 무려 31개 항이나 되는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고 투자 유치 실현증명서까지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투자 유치가 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급을 못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사실 기업의 투자 유치가 자치단체의 사활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국 지자체들이 기업 맞춤형 전략과 공격적 마케팅으로 투자 유치를 총력전을 펼치는 것이다. 하지만 쥐꼬리만한 성과급과 각종 제약으로 일선에서 뛰는 유치담당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린다면 그 결과는 결국 초라해질 수밖에 없다.

미끼거리 시간이 없다. 전남도는 당장 데스크포스팅을 구성해 투자 유치 조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차체에 전남도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종합적인 투자 대책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無等鼓

“...비로갠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아예 어떤내에게나 맡겨두고/ 쇠전을 거쳐 도수장 앞에 와 돌 때/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한 다리를 들고 날라리를 불 꺼/ 고개짓을 하고 어깨를 흔들거나.”

1973년 발표된 신경림 시인의 시 ‘농무’(農舞)의 일부본이다.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되고 황폐해진 농촌의 현실을 고스란히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작품이다.

기계화된 지금이야 달하겠지만 집단 노동에 의존하던 예전에는 모내기와 김매기 등 고된 농사일과 농악은 불가분의 관계였다. 새해를 맞아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의례에도 빠지지 않았다. 구례군 구례읍 신월리 신촌마을은 ‘잔수마을’이라고 불린다. 한자로 ‘潺’(물 흐르는 소리 전)+水(물 수)는 섬진강을 일컫는 말이다. 구례구역 맞은편 섬진강변에 자리한 이곳은 고려 때부터 관리들에게 말을 제공하던 역(驛)과 원(院)이 있었던 교통 요지이자 관문으로서 구례교가 놓이기 전까지 강을 건너던 나루터가 있었다고 한다.

이 마을이 주목받는 것은 마을 고유의 ‘잔수농악’ 등 민속의례를 그대

로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을 주민들은 해마다 새해가 시작되는 정월 초하루 자시(밤 11시)에 당산제를 지내고, 초사를 낮에 당산굿을 친다. 세시농악으로서의 ‘의례성’과 마을농악으로서의 ‘소박함’을 갖춘 잔수농무(農舞)의 일부본이다.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되고 황폐해진 농촌의 현실을 고스란히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작품이다.

기계화된 지금이야 달하겠지만 집단 노동에 의존하던 예전에는 모내기와 김매기 등 고된 농사일과 농악은 불가분의 관계였다. 새해를 맞아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의례에도 빠지지 않았다. 구례군 구례읍 신월리 신촌마을은 ‘잔수마을’이라고 불린다. 한자로 ‘潺’(물 흐르는 소리 전)+水(물 수)는 섬진강을 일컫는 말이다. 구례구역 맞은편 섬진강변에 자리한 이곳은 고려 때부터 관리들에게 말을 제공하던 역(驛)과 원(院)이 있었던 교통 요지이자 관문으로서 구례교가 놓이기 전까지 강을 건너던 나루터가 있었다고 한다.

이 마을이 주목받는 것은 마을 고유의 ‘잔수농악’ 등 민속의례를 그대 로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을 주민들은 해마다 새해가 시작되는 정월 초하루 자시(밤 11시)에 당산제를 지내고, 초사를 낮에 당산굿을 친다. 세시농악으로서의 ‘의례성’과 마을농악으로서의 ‘소박함’을 갖춘 잔수농무(農舞)의 일부본이다.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되고 황폐해진 농촌의 현실을 고스란히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작품이다.

기계화된 지금이야 달하겠지만 집단 노동에 의존하던 예전에는 모내기와 김매기 등 고된 농사일과 농악은 불가분의 관계였다. 새해를 맞아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의례에도 빠지지 않았다. 구례군 구례읍 신월리 신촌마을은 ‘잔수마을’이라고 불린다. 한자로 ‘潺’(물 흐르는 소리 전)+水(물 수)는 섬진강을 일컫는 말이다. 구례구역 맞은편 섬진강변에 자리한 이곳은 고려 때부터 관리들에게 말을 제공하던 역(驛)과 원(院)이 있었던 교통 요지이자 관문으로서 구례교가 놓이기 전까지 강을 건너던 나루터가 있었다고 한다.

이 마을이 주목받는 것은 마을 고유의 ‘잔수농악’ 등 민속의례를 그대

로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을 주민들은 해마다 새해가 시작되는 정월 초하루 자시(밤 11시)에 당산제를 지내고, 초사를 낮에 당산굿을 친다. 세시농악으로서의 ‘의례성’과 마을농악으로서의 ‘소박함’을 갖춘 잔수농무(農舞)의 일부본이다.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되고 황폐해진 농촌의 현실을 고스란히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작품이다.

기계화된 지금이야 달하겠지만 집단 노동에 의존하던 예전에는 모내기와 김매기 등 고된 농사일과 농악은 불가분의 관계였다. 새해를 맞아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의례에도 빠지지 않았다. 구례군 구례읍 신월리 신촌마을은 ‘잔수마을’이라고 불린다. 한자로 ‘潺’(물 흐르는 소리 전)+水(물 수)는 섬진강을 일컫는 말이다. 구례구역 맞은편 섬진강변에 자리한 이곳은 고려 때부터 관리들에게 말을 제공하던 역(驛)과 원(院)이 있었던 교통 요지이자 관문으로서 구례교가 놓이기 전까지 강을 건너던 나루터가 있었다고 한다.

이 마을이 주목받는 것은 마을 고유의 ‘잔수농악’ 등 민속의례를 그대

로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을 주민들은 해마다 새해가 시작되는 정월 초하루 자시(밤 11시)에 당산제를 지내고, 초사를 낮에 당산굿을 친다. 세시농악으로서의 ‘의례성’과 마을농악으로서의 ‘소박함’을 갖춘 잔수농무(農舞)의 일부본이다.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되고 황폐해진 농촌의 현실을 고스란히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작품이다.

기계화된 지금이야 달하겠지만 집단 노동에 의존하던 예전에는 모내기와 김매기 등 고된 농사일과 농악은 불가분의 관계였다. 새해를 맞아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의례에도 빠지지 않았다. 구례군 구례읍 신월리 신촌마을은 ‘잔수마을’이라고 불린다. 한자로 ‘潺’(물 흐르는 소리 전)+水(물 수)는 섬진강을 일컫는 말이다. 구례구역 맞은편 섬진강변에 자리한 이곳은 고려 때부터 관리들에게 말을 제공하던 역(驛)과 원(院)이 있었던 교통 요지이자 관문으로서 구례교가 놓이기 전까지 강을 건너던 나루터가 있었다고 한다.

이 마을이 주목받는 것은 마을 고유의 ‘잔수농악’ 등 민속의례를 그대

로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을 주민들은 해마다 새해가 시작되는 정월 초하루 자시(밤 11시)에 당산제를 지내고, 초사를 낮에 당산굿을 친다. 세시농악으로서의 ‘의례성’과 마을농악으로서의 ‘소박함’을 갖춘 잔수농무(農舞)의 일부본이다.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되고 황폐해진 농촌의 현실을 고스란히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작품이다.

기계화된 지금이야 달하겠지만 집단 노동에 의존하던 예전에는 모내기와 김매기 등 고된 농사일과 농악은 불가분의 관계였다. 새해를 맞아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의례에도 빠지지 않았다. 구례군 구례읍 신월리 신촌마을은 ‘잔수마을’이라고 불린다. 한자로 ‘潺’(물 흐르는 소리 전)+水(물 수)는 섬진강을 일컫는 말이다. 구례구역 맞은편 섬진강변에 자리한 이곳은 고려 때부터 관리들에게 말을 제공하던 역(驛)과 원(院)이 있었던 교통 요지이자 관문으로서 구례교가 놓이기 전까지 강을 건너던 나루터가 있었다고 한다.

이 마을이 주목받는 것은 마을 고유의 ‘잔수농악’ 등 민속의례를 그대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 업 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치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광고매체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체육부 2200-697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회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